

## 사랑에 경의를 표하는 주얼리 워치

블랑팡은 마릴린 먼로가 한때 소장했던 각테일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주얼리 타임피스를 공개하며 사랑의 의미를 기린다. 상징적 의미를 담아 **14**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하는 이 우아한 시계는 특별한 여성이 지닌 매력 그리고 과감함에 헌사를 바친다.

블랑팡에게 있어 밸런타인 데이는 축하해야 할 기념일과 같다. 매해 밸런타인 데이를 위해 사랑에 헌사를 보내는 여성용 리미티드 타임피스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. 진정 주얼리에 비견할 수 있는 **2020** 년 에디션은 독보적인 아이콘, 마릴린 먼로가 한때 소장한 아름다운 블랑팡 이브닝 워치에서 영감을 받았다. 직사각 형태의 화이트 골드 아르데코 스타일 케이스에는 **84** 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는데, 일부는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커다란 마르키즈-컷 다이아몬드 **2** 개도 포함되어 있다. 하트 두 개가 새겨진 머더오브펄 다이얼은 두 개의 브릴리언트-컷 다이아몬드,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루비 하트로 만든 두 마리의 고귀한 나비로 장식되어 있다. 이 타임피스의 아름다움은 블랑팡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직사각 형태의 칼리버 **510**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. 밸런스 휠과 배럴이 만들어낸 대칭미와 더불어 곡선미가 이 투톤 기계식 무브먼트에 섬세함은 물론 비주얼적 균형미를 부여하는 한편 챔퍼링 피니싱 처리한 브리지는 부드럽고 반짝이는 터치를 더한다.

관능적 매력과 기술적 매력 무엇 하나 놓치지 않은 이 주얼리 워치를 통해 **1933** 년 블랑팡 매뉴팩처를 인수하며 최초의 여성 시계 브랜드 소유주이자 책임자가 된 베티 피슈테르(**Betty Fiechter**)처럼 그 자체로 궁극의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의 유니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. 당대 가장 작은 라운드 형태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한 여성 시계 레이디버드를 처음 런칭한 베티 피슈테르 역시 자신만의 매력과 강인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

14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하는 특별한 “밸런타인 데이 2020” 워치는 브릴리언트-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핀 베클 타입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. 이 매혹적인 타임피스 는 블랑팡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. 1930 년 이래 여성들도 충분히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노하우와 마법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블랑팡 매뉴팩처 정신 말이다.